

나의 제언/ 채란계산업 이렇게 해야 발전한다.

등급위주 유통구조를

총중량 개념으로

전환하자



김 정 식
운천채란분회장

수 입개방조치로 인하여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입이 구체화 되면서 양계산업도 적잖은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계분야에서는 냉동액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사실상 개방된 상태여서 야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단계이다.

이를위해 양계인들은 최대한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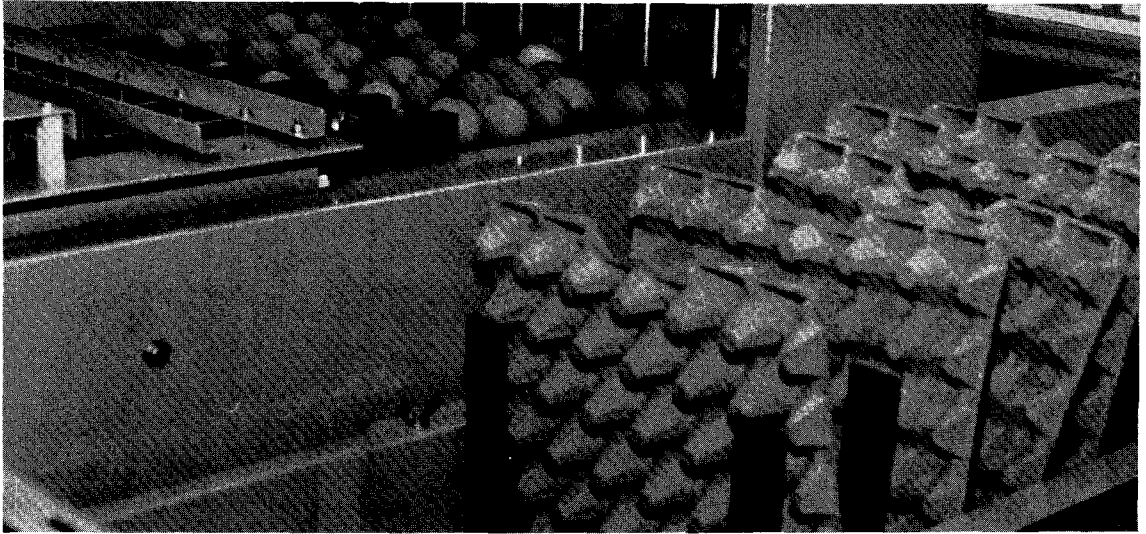
채란양계산업이 해결해 나가야할 일은 우선 집하장의 제도개선과 운영방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들어 양계산업이 대규모로 발달함에 따라 집하장이 지역별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일로 볼 수 있다. 집하장

(G·P)이란 등급과 포장(Grading and packing)을 의미한다.

이 뜻대로 한다면 등급과 포장단위를 결정하여 생산농가에서는 안심하고 이윤을 최대한 얻을 수 있고 소비자는 믿고 살 수 있도록 중간적 역할을 해 주는 곳이 G·P센터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생산농가의 경우 사료구입시에는 총중량 기준으로 구입하지만 계란판매시에는 총중량 기준이 아닌 크기기준으로 출하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 예로 계란가격에서 60g이나 70g의 알이 모두 54원에 거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10g 범위의 값이 똑 같다는 것은 계란 유통상의 큰 폐단이라 본다.



채란농가와 상인의 시비가 야기되는 주된 원인은 유통구조의 문제, G·P센터의 역할부실(비합리적 비과학적인 거래) 등에 있다. 그래서 현재 특·대·중·소·경관 기준으로 거래되는 것을 계란의 무게(kg)당 값을 명시하여 거래하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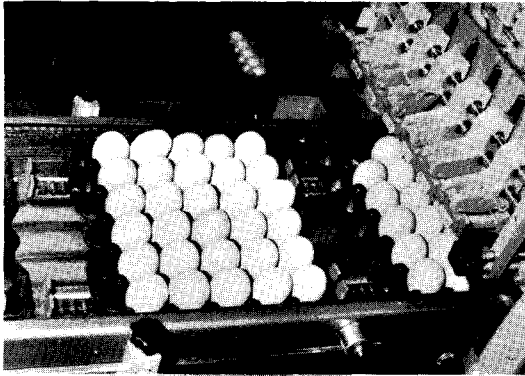
이처럼 등급과 포장을 확실히 명시하면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유통형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UR협상에 의한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출산업으로의 방향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상품을 팔 나라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일본, 미국, EC 등은 각각의 소비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등급제로 포장 수출하면 수입개방을 겁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현재 쓰고 있는 선별 등급에 투자되는 인력과 비과학적인 포장방법으로는 많은 비용이 드는 실정이다. 이를 조직적으로 조합을 형성한 집하장에서부터 개선해 나간다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다음은 행정당국의 제도개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시설자금 때문에 생산자간에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정부는 생산농가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 보다 생산자를 위시한 제도개선을 효율적으로 정립하여 생산자간의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국제경쟁력도 갖게하고 소득증대도 꾀할 수 있게 함이 중요하다. 한 예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설자금을 영세양축농가에게 지원한다 하여 예산규모까지 얼마인가 고시를 하는 것은 좋으나 실제로 그 자금이 해당농가에게 전달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지원자금이 축협을 통해 전달될 것이라면 그 해당자가 우선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나 여신관리규정에 합당한가의 여부나, 자금을 지원받아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계속 경영을 할 것인가 하는 등에 적합한지 해당기관에서는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하고 자금이 전달된 후에도 명확한 결과를 발표 했으면 한다. 건축법과 환경법에서 보면 서로 보완됨이 없이 폐단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권익을 위해 안전하게 채란업을 할 수 있기까지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개선이 필요하리라 본다.

우리나라는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라는 표어 아래 88올림픽을 치룬 긍지있는 나라이다. 그



러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었고 과거를 거울삼아 내일을 위해 노력함이 발등에 떨어진 UR대처방안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표어대로 세계에서 서울로 들이밀것은 많은데 서울에서 세계로 내보낼 것이 없는것 같아 양계인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울 뿐 이다. 서로 사리사욕으로 채워져가는 사회를 볼 때 다함께 사는 사회를 생각하게 되고 또한 채란인으로서 일괄성 없는 양계정책을 펴는 정부의 정책에도 회의를 느낄 때가 많다. 그래도 양계인이기에 제도개선의 올바른 길을 바라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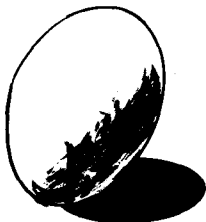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채란업자들도 스스로 사고방식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만 같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즉 계사내 관리시 계사온도를 강조하다 보면 습도가 맞지않아 닭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반대로

습도를 강조하다보면 계사온도를 소홀히 할 수 있듯이 단편적인 것에서도 합리적 사고와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채란업자들이 계란값을 잘 받으면 잘 받은 계란값을 노출시켜 남도 그 값을 받도록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받은 계산서는 아예 은폐하고 잘못 받은 계산서는 쌍수를 들고 내보이는 실정이다. 그러니 계란값을 잘 주고 싶어도 주는사람 입장에서 잘 줄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 남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된다는 진리를 거역하고 요즘에는 역으로 악마성 사고가 우리의 무의식속에 파고드는 경향이 있다. 계우회 사무실에서 계산서를 수집하다 보면 잘 받은 계산서보다 잘못받은 계산서가 더쉽게 수집된다. 왜 떼뻗하지 못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싸움구경 불구경이면 만사 제쳐놓고 하고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지만 자신만은 떼뻗하게 속임이 없었으면 한다. 인간문화의 발달은 소유욕과 이기심의 기초에서 이루어 졌음을 볼 때 이러한 속성을 생산과 발전에 연결시키는 것이 곧 지혜가 아니겠는가 생각도 된다. 어느 석학자가 “미래의 충격”이란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급변하는 현실속에 “현실충격”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모든 채란양계인의 현실대처능력을 믿어보며 새해에는 더 현명한 양계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양계**



달같하나 건강하나
동그랗게 웃는 하루